

유럽공동체(EU) 국가들의 설계공모제도와 독일연방국 전(前)수도 「본(Bonn)」시의 ‘교육의 집’ 공모 수상 심의위원회 수상결정 회의 참관기③

Architectural Competitions in the EU-States & Experiencing the Jury session for the "House of Education" in the City of Bonn/Germany

이선구 / 송실대학교 건축학부 명예교수
by Prof. Dr. Lee, Sunkoo
Soongsil University, Seoul/Korea

feature

공모 절차를 위한 제반서류

공모절차 참여자들은 아래의 제반과업들을 완성되고 채색된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모 주관자가 제공하는 제반 서류

공모에 참가하는 건축사사무소들은 공모공시문서 (Auslobungstext, 2회 연재 참조) 외에, 추가로 아래의 자료를 포함하는 CD-Rom 을 받게된다.

- 기존 건물도면 : 평면, 단면, 입면(dxf- 와 dwg- 데이터)
- 토지대장 축척 1:1000 (pdf- 데이터)
- 위치도 축척 1:250 녹지 데이터와 함께(pdf-와 excel- 데이터)
- 지구축조 양태계획 (Bebauungsplan 일명 지구상세계획) No.77225 와 설명서 (pdf- 데이터)
- 건물과 주변사진 (jpg- 데이터)
- 항공사진 (pdf- 데이터)
- 서식용지 (pdf- 와 excel- 데이터)

요구된 제반과업

제반 도면

- 도시계획적 개념/축척 1:500의 아래 표현을 갖춘 배치도
 - 건물구조 (건물, 층고)
 - 외부 및 내부 동선
 - 녹지 및 공지, 보도(보행자통로, 중정)
 - 수목(樹木)의 보존/제거 및 새로운 식재(植栽)
 - 중요한 부지분할 개념/부지정리
- 철거 건물부위를 표현한 지하층 평면, 기술제실 안배, 시립 도서관 및 국민대학으로 이끄는 입구와 함께 주출입구, 축척 1:200으로 사용단위 표현과 함께 여타 층 평면
- 보틀러 광장과 보루벽으로부터 본 건물전체의 기본적인 입면표현 및 축척 1:200의 최소 2개의 전형적 단면
- 전체계획의 선택된 영역의 세부: 예상되는 자재와 함께 입면개념 및 주요 상세요소들 표현
- 건물부위의 단계적 실현의 표현 (도시계획적 아이디어 부분)
- 공간적 표현(최소 각 1개의 가로측 투시도, 여타 공간 시물

레이션 또는 유사품) DIN A0 세로 크기로 최대 5개 채색 도면들 (北方표시)이 허가됨

제반 설명/계산 (각3부)

- 에너지 기술 표준, 기본적인 구법 및 건물외파 자재 및 기념물 보호 분야에 대한 서술을 포함하는 설계 설명서
- 지켜야 할 인동거리의 도학적 및 계산적 증명(도시계획적 아이디어 부분)
- 건축적 지표(指標) 데이터, 특히 -검토가능한- DIN 277에 따른 계산 및 건축면적, 용적(m³)¹⁾, 건물 총 바닥 면적, 건물 순(純) 바닥면적, 이용 면적의 산정(축척 1:200의 도면 해당 바닥에 검토가능하게 모든 이용면적의 표시(m²))
- 건물 연면적(BGF)의 근거위에 DIN276 300/400²⁾에 따른 제비용 증명, 건물 총용적(BRI)의 근거 위에 300/400에 따른 비용 증명, 총면적 제시로서 DIN276에 따른 비용개략계산, 실현부위를 위한 최소 비용분류 2단계까지의 비용그룹에 따른 비용 개략계산, 도시계획적인 아이디어 부분은 건물 연면적 및 총용적에 근거한 비용증명으로 족함.

여타사항

- 원도면 크기로 검토도면 2벌(말이)
- DIN A3크기로 축소된 채색도면 1벌
- 최소 300dpi의 jpg 또는 tiff 형식으로 원도크기의 모든 도면 및 doc-데이터로 모든 설명서를 CD-Rom으로 제출된 자료목록
- 지적 저작권에 관한 형식없는 선언

클로쿠움(질의 응답) 참여

모든 공모 참여자들에게 2008.6.24일 공모 개시/질의응답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공모공시

'교육의 집' 입지와 테두리적 제(諸) 조건

연방시(市) 「본」이 '교육의 집' 을 갖게 된 배경은 2007.1.31일자 시 참사회(參事會)의 「보틀러」광장 입지에 '교육의 집' 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한정 설계공모' 를 실시하기로 한 결의로부터 시작된다.

연방 시 「본」 참사회 결의

위 결의 이후 거의 1년이 지난 2007.12.17일 그 첫 번째 단계로 시 유지(市有地)「보틀러」광장 소재 옛 '시청(Altes Stadthaus)' 의 공간들을 아래의 여건 하에 실현시킬 것을 시 관계부서에 위임하였다.

- 프로젝트 실현의 제 비용은 업무용 집기와 이사비용을 빼고 1천 백만 유로 (~19억 8천만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시립 도서관과 '국민대학 (Volkshochschule, 성인 교육기관)' 두 시설을 기존 건물 3개층에 두어야 한다.
- 실현을 위하여 한정 건축 설계공모(유럽 공동체 전역(全域)에 공고하여 자격을 갖춘 응모자들 중에서 추천하고 시상 심의위를 통한 당선작 선택을 실시한다. 이 설계 공모는 이외에도 「빈트 엑」병커에 시립 박물관과 국가사회주의(NAZI)시절 동안 「본」시의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장소를 위한 추후 확장을 가능케하는 도시 계획적 제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1천 1백만「유로」투자 총액 중 외곽 시설(조경)을 포함한 총 건축비는 9백 3십만 「유로」(~16억 7천만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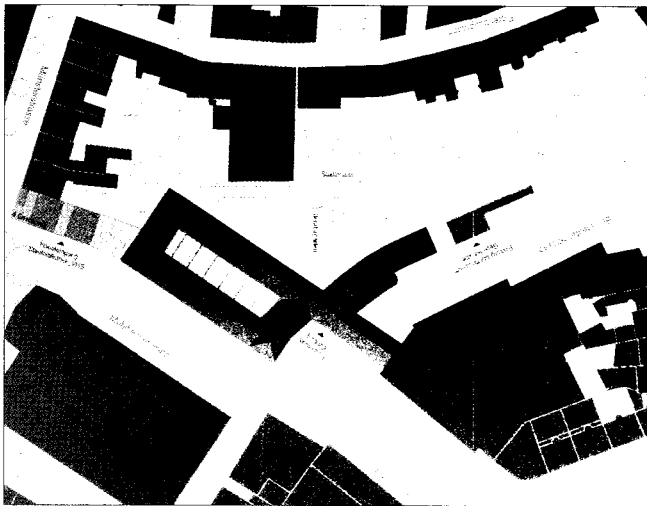
설계 공모를 위한 일반적 요구 사항들

원래 1925/26년 시(市) 행정 건물로 건립된 「보틀러」광장 소재 '도시 가옥 (Stadthaus)' 으로 불리우는 구 시청 건물은 균등한 열(烈)로 배치된 유리창과 소규모로 계획된 출입구 부분과 더불어 강력한 외적인 짜임새를 보이며 「본」시가 소속된 「노르트라인 · 베스트팔렌」주의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 기념물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장래의 건물 이용자들의 기능적이며 경제적인 요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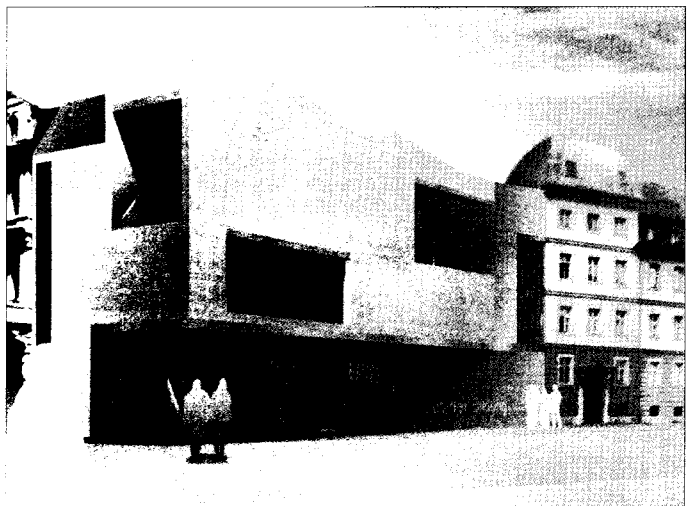
연방도시 「본」은 교육, 텔레컴과 기후 보존 등의 미래 지향적인 분야에 역점을 두고자 하여 '교육의 집' 은 아래의 국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 유럽 다른 나라들에서 이미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듯이, '교육의 집' 은 더 이상 두서너가지 기구를 단순히 합치는 것 보다는 여러 교육 시설들의 협력과 통합의 새로운 질(質)을 갖추어야 한다. 건축 개념 또한 이러한 통합적 생각에 바탕을 두고 시립 도서관과 성인 교육기관인 '국민대학' 두 기구는 외부로의 개방성, 시각적 자극과 투명성을 증개하여야 한다. 매력적인출입구 영역을 통하여 끌어들이 효과를 창출하며 두 기구의 통합적 성격을 읽을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 「본」시는 미래기술의 도시이다. 따라서 '교육의 집' 역시 미래 지향적인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개별적이며 집합적 이용을 위하여 예시적이어야 한다. 역사적인 건축 자산과 혁신적인

1) 건물의 높이까지 고려한 건물의 3국면적 크기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관계규정에 전적으로 결여된 부분임.
 2) 독일 공업 표준 DIN276 '지상 건조물의 제비용-비용산출' 은 설계 계획의 과업단계에 따라 '비용 개략계산, 비용계산, 비용견적과 비용확인' 순서에 따라 산정하며, 300/400은 건축물 자체를 위한 비용 계산방법이다. 자세한 것은 이선구,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기초조사, 대한건축사협회 최종보고서, pp.26-28 및 56-57 참조



배치도



입구 부위 신축

기술의 설득력 있는 기술적 형태구성적인 조합에 높은 가치가 부여된다.

- 「본」시의 기후보호를 위한 사회참여와 에너지 비용 발전에 대비하여 비용과 환경을 의식한, 미래지향적이며 개별 및 공동이용을 위한 모범적인 에너지 개념이 공모의 틀 속에서 우선되어야 한다.

공모지역의 도시계획적 현황

‘옛 시청’과 ‘지멘스가옥(Siemenshaus)’은 연방도시 「본」 도심부 중심에 위치한다. 연속된 두 건물은 「본」시 보행자 구역 한복판에서 「보틀러」광장과 「뮐하임」광장 사이의 건축적 연계점을 구성한다.

도심은 전반적으로 개별 소매상, 서비스업, 요식업, 문화시설, 중심적 행정사무소와 주거 등의 다양하며 활력있는 혼합 이용을 보이고 있다. 공적 공간은 가로, 광장과 녹지로 구성되어 활용되는 연결망을 형성한다.

가장 빈번하게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은 보행자 구역으로 이에 맞는 옥외 음식점들이 사람들을 이곳에 머물도록 초대하고 있다.

‘옛 시청’과 ‘지멘스가옥’은 각각 상이한 성격을 띄우며 활기차고 다양한 가로와 광장들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

도심의 중심적인 행사마당인 성당 앞 광장과 연결 또한 양호하다. 두 광장들 중 「보틀러」광장은 여름철 옥외 음식점들로 붐비지만, 「뮐하임」광장은, 주(主) 철도역으로 향하는 「카시우스」보루 통로가 「플로렌티우스」해자 길로 방향을 정하고 있어, 한산한 편이다.

도시계획적 목표 설정

‘옛 시청’과 ‘지멘스가옥’의 용도 변경을 통하여 기존의 도시구조와 도심부에 풍부함을 부여하는 자רק제가 되고자 한다.

새로운 이용을 위한 건물 출·입구의 상황은 바로 이러한 충동을 분명히하고, 기존상황을 고려하되 생동감을 주어야 한다. 건축적 확장(증축)은 감수성을 가지고 기존건물에 적응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양한 도시공간들과 출입구 상황의 연속순서는 판독가능하여야 하며 쉽게 방향을 찾을수있어야 한다.

이상의 고려로부터 ‘옛 시청’ 주변의 아래 개별 영역들을 위한 상이한 역점이 놓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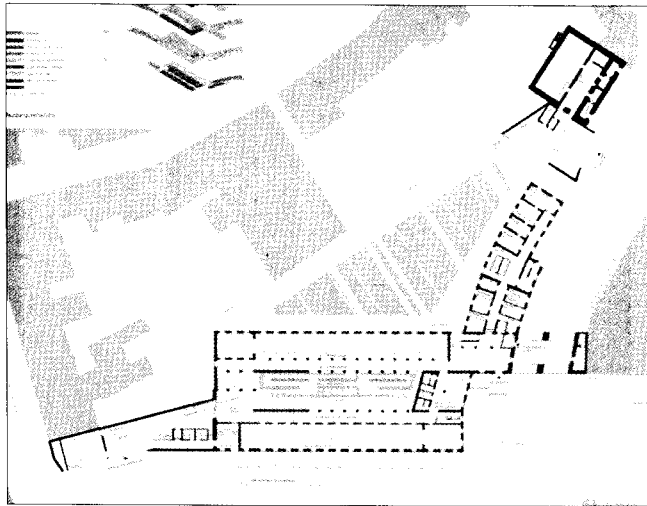
- 목표영역 「보틀러」광장 : 이 영역은 가급적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며, 「보틀러」광장은 이미 2007년 새롭게 구성되었다.
- 목표영역 「뮐하임」광장 : 「지멘스가옥」을 포함시킴에 새로운 용도에 맞는 새로운 출입구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앞의 공공 공간을 향하여 발산되어야 하며 공간의 질을 높여야 한다.
- 목표영역 「부다페스트」가로 : 기존 도로연결을 위한 통로는 유지한다. 건축적 보완(증축)은 가능하며 기존건물과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건물의 새로운 이용은 자석효과를 가져야 하며 체류의 질을 높여야 한다.
- 목표영역 중정 : 이 영역에 건축적 보완이 이루어 질수 있으며, 이 부분은 기존건물에 비하여 분명히 판독할 수 있고, 주변에 적응하며 기존 건물의 하위(下位)에 처하여야 한다. 녹지공간은 연결지어 구성하며 역사적인 도시성벽은 구성에 포함시켜야 한다.

문화재(기념물)보호

「보틀러」광장의 ‘시청’ 건물은 원래 1925/26년에 도시행정을 위한 사무소건물로서 건립되어 70년대 초에 시립도서관으로 1층이 전용되었다. 개축중 중정은 자연채광 가능한 지붕으로 덮히고 폐쇄된 벽은 기둥구조로 대체되었다. 여타 층들, 계단실과 출입구부위는 건축적으로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시청건물의 특별히 눈에 띄는 효과는 매층마다 돌림띠로 함께 모은 같은 모양의 창문들의 열(熱)이다.

수평적인 배열은 아래층에서 거칠게 다듬은 네모돌 대(帶, rustication)로 받아들여 또 한번 강조되었다. 이러한 자체로 달린 한



1층 평면도

덩어리로 구성된 1층은 1920년대 행정건물의 전형이다. 보다 넓은 공간과 공간군(群)을 위한 신축건물은 건축적으로 독자적인 건물로서 구건물에 맞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類)의 증축의 입지로서 우선 구건물과 병커사이의 영역과 다음으로 현재의 중정부분이 고려될 수 있다.

시청건물의 우위(優位)를 약화시키지 않기 위하여, 중정 내 증축은 1층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시청과 병커사이에 증축할 경우 문화재청의 관점에서 옛 시청건축의 처마선 높이(eaves height)를 이어 받아야 할 것이다.

시청건물의 원 상태로 보존된 윗층을 대규모 공간으로 만들고자하는 가능성은 문화재청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간주된다. 반면 옛 '지멘스·하우스'는 「본」시 문화재 명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교통분야

「보틀러」광장 사유지는 보행자구역 경계구역에 위치하여 6.00-12.00시 사이에 「뿔하임」광장을 통하거나 「빈트엑」가/「부다페스트」가를 거치는 부지 후방영역을 통하여 제반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며, 「뿔하임」광장으로 포석은 「보틀러」광장 구성에 맞추어 필요한 변경을 조율해야 할 것이다.

승용차/화물차를 위한 추가주차장을 지상에 만드는 일은 불가하며, 인근 지하주차장이 충분하다. 공공공간에서의 추가 자전거 보관 시설은 바람직하며, 공공인근 교통을 통한 접근에 관한 「본」시는 가히 모범적이다.

보행자 구역내에 많은 수의 대중왕래가 기대되는 건물의 공적 이용에는 주변다수를 고려하는 미래지향적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고도의 장애물 없는 공공공간을 필요로 한다. 건물은 승강기 설비를 갖추었고 윗층으로의 진입은 장애인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연방국 「본」시 「보틀러」광장 「교육의 집」 설계공모의 공모 과정 중 절차의 투명성에 관한 세 가지 문서 중 「공모결과 기록」 문서인 「프로토콜(Protokoll)」의 중요성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서는 모든 공모 참가자들과 주(州) 공모위원회에 송달될 뿐만 아니라, 2주에 걸쳐 전시되는 공모 작품 전시에 공모 작품들과 함께 진열된다.

공모 시상 심의 위원회의 심의과정의 충실한 기록인 이 회의록은 우리나라의 설계공모 심의과정을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아래에 그 구성을 가급적 충실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2008.10.17 공모 시상 심의 위원회 회의록

시상심의 위원회가 10시에 회동하다. 공모주관자를 대표하여 「본」시 「루드비히·크라프」박사가 출석한 심의위원들과 예비 검토자들을 환영인사하다. 예비검토는 이들의 출석을 명명하여 확인하다.

아래의 인물들이 출석하다:

시상 심의위원(알파벳 순서로)

- 건축사 알렉산더·피셔, 쾰른 시(市)
- 교수³⁾ 되르테·가터만(여), 쾰른 시
- 교수 만프렛·헤거, 다름시타트 시
- 교수 라이너·메르테스, 베를린 시
- 교수 칼·하인츠 시미츠, 바이마르 시
- 교수 게르노트·슐츠, 쾰른 시
- 건축사 한스·외르크 텔렌, 뒤셀도르프 시

「본」시를 대표하여

- 위르겐·브라운
- 안젤리카·에시(여) (사민당 시의원)
- 아르노·호스페스 (기민당 구의원)
- 루드비히·크라프 박사 (시 문화국장)
- 기젤라·멩엘베르크(여) (녹색당 시의원)
- 크리스티아네·오퍼만스(여) (기민당 시의원)
- 이상 표결권 자 (13人)

부 심의위원

- 건축사 파울·뵘, 쾰른 시 (지각)
- 하인츠·헨첼, 「본」시 (기민당 시의원)

3) 독일 연방국의 건축 설계 교수는 교육 이외에 설계업무를 합법적으로 겸업할 수 있으며, 대부분 설계교수가 되기 전 탁월한 설계능력이 증명된 인물들이다.

- 건축사 토마스 · 클롭프, 브레멘 시
- 베르벨 · 리히터(여), 「본」시(시민당 시의원)
- 요하네스 · 쏫, 「본」시(구의원)
- 바르바라 · 브라니(여), 「본」시(자민당)

전문가적 자문인으로 (외부인사):

- 안드레아스 · 시튀르머 박사, 「본」시

전문가적 자문인으로 (내부인사):

- 토마스 · 베르봇, 「본」시
- 베레나 · 로이터(여), 「본」시
- 잉그릿 · 쉴 박사(여), 「본」시
- 프란츠 -요셉 · 탈봇, 「본」시

여타 시(市)행정부서로부터 :

- 한스-야콥 · 호이저, 「본」시
- 아네테 · 호르츠(여), 「본」시

예비검토로 :

- 아네테 · 뵈머(여), 「본」시
- 니콜 · 풍크(여), 「본」시
- 바르바라 · 그리스(여), 「본」시
- 데트마르 · 쿨, 「본」시

예비검토 비용/전략문서(에너지 기술, 구조역학외) :

- 건축사 올리버 · 펠힐터
- 마르틴 · 클리마

예비검토/조정 :

- 건축사 이리스 · 아넨(여), 뒤셀도르프 시
- 건축사 클라우디오 · 시테게, 뒤셀도르프 시
- 건축사 케르스틴 · 펜만, 뒤셀도르프 시

손님 :

- 건축사 카티아 · 에시(여), 「본」시
- 교수 공학박사 이선구

공모주관자가 시상심의회 위원장 선출을 이끌며 「되르테 · 가터만」교수(여)를 심의회 위원장으로 천거하다.

심사위원 일동으로부터 「되르테 · 가터만」교수가, 그녀의 기권과 더불어,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추대되다. 위원장은 참가자 명단을 검토하고 예비검토 위임자인 「니만 · 시테게」사(社)의 「케르스틴 · 펜만」(여) 건축사를 회의 기록자로 지명하다.

심사위원 「파울 · 뵘」씨가 아직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한스 외르크 · 텔렌」씨가 그의 대행인으로 만장일치로 선출되다. 「본」시 「베르벨 · 딕만」시장(여)을 대신해서 「브라운」씨가, 「웨르너」교수를 대신하여 「술츠」교수가 대임(代任)하다. 「호스페」씨는 오후 결석 동안 「헨첼」씨가, 「브라운」씨는 낮 시간 동안 「리히터」씨가 대임할 것이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절차를 설명하다. 시상심의회 회의에 허가된 모든 사람들은 심의를 비밀 유지하에 다룰 것임을 보증하다. 이들은 또 시상심의회 개최일까지 개별 공모출품작들에 관하여 아무것도 아는 바 없으며, 공모참가자들과 과업에 관한 하등의 의견교환도 하지 아니하였음을 천명하다.

위원장은 출석인들에게, 심의위의 결정까지 추측되는 작품저작자들에게 관한 모든 발언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다.

심의회는 공모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며 우선 예비검토 결과에 대하여 보고 할 것을 요구하고, 결과는 아래와 같다.

모든 15개 작품들은 마감일에 맞게 제출되었고, 익명성 저촉(匿名性 抵觸)⁴⁾이 없었고, 요구된 공모 제(諸) 과업은 - 예비검토 보고서 "형식적인 판단기준" 항에 세부적으로 열거된 대로 - 제출되었다.

위 보고에 이어 작품들은 정보 순회(巡廻)⁵⁾를 통하여 자제하고 가치평가가 없이 예비검토 («니만+시테게」사(社)의 건축사 「이리스 · 아넨」씨)를 통하여 설명되다.

평가제 기준들을 논의한 후에 또 1차 평가 순회 후 기능적 및 건축적 취약함에 근거하여, 작품1005와 1011이 만장일치 결의로 탈락하다.

2차 평가 순회에서 나머지 13개 작품들이 개별 도면들 앞에서 집중적으로 토론되다. 개별 검토영역들에서의 부족함이 1003, 1004, 1006, 1007, 1008, 1012, 1013과 1015 8개 작품들을 탈락으로 이끈다.

5개 작품이 결선(決選)을 위하여 남게 되다, 작품1012와 1013이 재심 제의에 따라 각 8:5 표로 결선에 받아들여지다. 따라서 1001, 1002, 1009, 1010, 1012, 1013, 1014 7개 작품들이 결선에 남게 되었다. 작품들은 다시 토의 되었고, 이번에는 구조역학적 또 에너지 개념에 관하여 토론되고, 연이어 서면으로 심의위에 의하여 판단되었다.

서면판단들은 도면 앞에서 낭독되고, 토론되고 또 재가(裁可)되었다.

여기서 나중 당선작으로 결정된 출품작 1002의 서면 설명을 읽어 보도록 하자.

‘교육의 집’ 으로의 새 출입구를 「지멘스 · 하우스」건물 대신, 신

4)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칙 위반

5) ‘정보 순회’란 공모작품들을 진열한 후 돌아봄을 의미하며, 이후 1차 및 2차 평가순회 과정에서 매(每) 작품 앞에서 상세한 개별평가가 이루어 진다.

작품	상	표결 분포
1002	1등	8:5
1010	2등	10:3
1001	3등	10:3
1014	4등	10:3
1009	작품매입	13:0
1012	작품매입	13:0
1013	작품매입	13:0

축건물로 옮기기로 한 결정은 전체 개념과 그 장래 이용의 완전히 새로운 도시 계획적 끼워 넣기를 의식적으로 야기하였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매력적이며 추가적으로 현재의 만족스럽지 아니한 도시 형편을 개선하는 가능성을 창출한다. 이 밖에도 작품은 시청의 옛 주 출입구를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고자 하는 기념물 보호청의 요구사항을 따르고 있다. 아이디어 부분에 있어서의 도시 계획적 보완은 시종일관된 독자적인 해결책으로, 그 세부적 형성은 도시공간에서 상상 가능하면서도 실현부분에 강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축 건물에서 추가 공간을 만들든 이곳에 확실하게 눈에 거슬리는 건물로부터 귀중한 정원 영역을 완전하게 비우게 함을 가능케 하였다, 여기 분명한 질(質)이 보장되었다.

도시적 표현상(表現像)에 있어서의 신축 건물의 척도성과 형태언어는 물론 토론의 여지가 있다. 독자성과 시사성/현실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시청으로의 통로는 오히려 의문점을 갖게 한다. 공적 도시공간에서의 새로운 이용상의 혼합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며 고도의 계획적 주의를 요한다.

이용의 분배의 가능성은 새로운 진입 부위를 통하여 설득력 있게 단순한 수단과 제한된 개입으로 아주 잘 해결되었다. 신축 건물의 특수 바닥의 층(層) 들은 구 건물에서 매력적인 거대 공간구조를 가능케 한다. 이용의 혼합이나 분리된 개별이용과 뒤로 물러선 행정부위는 적확(的確)하게 조직되었다. 증정들을 커다란 홀로 개방함으로써 인상 깊은 공간 연출 외에도, 이용상의 통합 요구에 걸 맞는 현실적으로 양질의 밝은 내부영역을 창출하였다. 신축건물로 결정함으로써 구 건물에의 건조 역학적 계획상의 개입은 경미하고 내세울 만하다. 기술적 개념은 거의 표현 되지 아니 하였다. 생태 환경적, 또 에너지 기술적 국면은 차라리 기술적이기 보다는 건축적 해결책으로 고려하기로 시도하고 있다. 산출된 초과 비용은 물론 결정과는 무관한데, ~9%면적의 질적으로 고가의 추가 공급과 도시 계획적으로 바람직한 신축 건물을 위한 제 비용들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이 후 작품 번호 1009, 1010, 1012, 1013, 1014에 관한 서면 비평문)

10시에 회동을 시작한 시상 심의 위원회는 같은 날 18:15분 표결 과정에 들어가, 만장 일치로 동급(同級)의 작품 구매를 결의하고 상세한 토의 끝에 다수결로 결선 과정에 남은 설계 작품들 중 아래의 순

작품	저작자
1001	베른하르트·빙킹 교수, 독일 건축가연맹(BDA)건축가, 베를린시
1002	알렉산더·E·코블릿츠, 베를린시
1003	BKSP 건축가들, 하노퍼시
1004	퀴늘+시밋, 갈스루에시
1005	베네딕트·토농 교수, 베를린시
1006	쿤츠+만츠, 뷔르츠부르크시
1007	s정방향 m, 키랏츠시
1008	라뭏+빛꽃 건축가들BDA, 시룟가르트시
1009	KSP엔겔+침머만 유한회사, 필른시
1010	슈프링거 건축가들, 베를린시
1011	코너만식문트 건축가들 BDA, 함부르크시
1012	슈나이더+셴델바하 건축가들 유한회사, 브라운 슈바이시
1013	1체스 넷니스 건축가들 BDA, 베를린시
1014	1말+프롭스트 사무소, 뮌헨시
1015	ΠZ 건축가들, 포츠담시

서로 순위를 정하였다.

1등 당선작 (위장번호 1002)

건축가: 알렉산더 E. 코블릿츠, 베를린시

협력자: 세바스티안 뵘메, 야셀 슈밋, 쉘 필립 바이칼

전문 계획가: 엔지니어 유한회사 w33, 베를린시

시나이, 파우스트, 시룟, 시바르츠

옥외공간 계획 + 프로젝트 조절 유한 회사

A.W. 파우스트, 올레 시스

• 수상 작품

-4 (1등 1002, 2등 1010, 3등 1001, 4등 1014)

• 작품 매입

-3 (1009, 1012, 1013)

• 2차 작품 평가 순회 후 탈락 작품

-6 (1003, 1004, 1006, 1004, 1008, 1015)

• 1차 평가 순회 후 탈락 작품

-2 (1005, 1011)

• 공모작품 총

-15

시상 심의 위원회는 다수로 공모 주관자에게 1등 상을 받은 작품을 계속 작업의 바탕으로 택할 것을 추천하다. 여기에 서면 판결에 제시된 언급과 추천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추가로 심의위는 도서관과 국민대학 간의 강력한 연계를 더 강화할 것과 포괄적인 개방 시간을 발전시킬 것을 정계(政界)에 권장하다.

심의위 위원장이 봉투를 개봉한 후 작품 저작자들의 이름이 확인되다. 작품 전시는 2008.11.5일부터 20일 까지 53111「본」시 베를린 광장 2번지 구(舊) 시청 (Stadthaus) 로비에서 거행된다. 이어서 위

원장은 「니만-시테게」사의 예비 검토의 임무를 해제하고 회의의 주 도면밀한 준비에 대하여 감사하다.

위원장은 시상 심의위 위원 모두에게 적극적 참여와 건설적 협력에 감사하고 위원장직을 「크라프」박사에게 돌려준다. 「크라프」박사는 심의위 위원장과 모든 참가자들에게 감사와 더불어 회의를 종결하다. 회의는 18 : 40분에 폐회하다.

「본」, 2008.10.17

위원장 서명

되르테 가터만 교수

첨부 : 참가자 명단

연방시 「본」의 '교육의 집' 공모시상 심의 위원회 - 참가자 명단

2008 10. 17. 금요일

본인은 아래에 본인의 서명으로

- 공모 참가자들과 공모 과제와 또 그 해결에 관하여 하등의 의견 교환을 하지 아니 하였음을,
- 공모 참가자들과 공모 과제와 그 해결에 관하여 시상 심의위 기간 동안 하등의 의견 교환을 하지 아니할 것을,
- 작품 제출 기한까지 공모 작품들에 관하여 정보를 얻은 바 없음을,
- 심의에 비밀을 보장하였음을,
- 익명성을 지켰음을,
- 추측되는 저작자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시상 심의위원

만프렛 · 헤거 교수의 7인(건축가)

시상 심의위원

배르벨 · 덕만 「본」시 시장 외 6인 (시장, 「본」시 문화국장, 4정당 대표)

심의위원 대리

건축사 토마스 · 클롬프 외 3인(건축가)

심의위원 대리 (시장, 정당대표)

전문부서 시장 유르겐 · 브라운 외 5인

손님

건축사 카타야 에시(여), 이선구 교수

자문인 대리 (외부)

라인지방 기념물 관리 안드레아스 · 시튀르머 박사

전문가적 자문 (내부)

도시 보존관 - 기념물 관리청 프란츠 · 요셉 박사

국민 대학장 잉그리트 · 쉘 박사

중앙 도서관장 베레나 · 로이터

건축 법규청장 발리 · 도르마겐 외 5인

행정부서 참관인

문화청장 한스 · 야콥 호이저 외 2인

예비검토

건물 관리청 프로젝트 지휘 뎃트마르 · 쉘

지상 건물 및 기술부 사업분야장의 4인

예비 검토 비용/전략 문서

건축사 올리버 · 펠 힐터, 캠펠-크라우제 엔지니어사(社) 외 2인

니만 + 시테게 유한회사 / 조절 / 예비검토

건축사/ 도시계획가 클라우디오 시테게 외 3인

이번 연재를 모두에 언급된 '교육의 집' 설계공모 전(全)과정의 3가지 주요문서는 ①공모 공시(Auslobungstext), ②공모결과 기록(Protokoll)과 ③문서화(Dokumentation) 라고 하였다.

그간 연재를 통하여 사실상 ①과 ②문서는 그 골격이 상세히 서술되었고, ③과정도 내용적으로 이미 언급되었다.

전(全)공모과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총 A4크기 33페이지에 달하는 문서(Dokumentation)는 '건축 부지의 역사적 발전', '주변지역 이용상의 의미와 도시계획적 구조', '도시내의 위치' 를 기술(記述)하는 **상황설명부분**과 '공모의 대상' 을 기술하는 **공모의 과제**, '도시계획적 목표설정', '기념물 보호', '교통영역' 등을 기술하는 **목표 설정**, '공모의 종류', "허용범위 (예: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와 공모의 사용언어(독일어)", '공모실행 과 해당 연방 주(州) 공모규정과와의 합치성 각서', '판단 기준', '시상 금과 작품매입', '계속 위임', '작품전시' 에 관한 기술인 **과정**, '시상심의위원 구성', '예비검토' 자들의 명단 기술인 **참여 인물들**, **시행일정**, '수상작품들', '매입 작품들', '여타 작품들' 을 기술하는 **공모 결과**로 구성되어 있어 공모과정의 전부를 투명하게 보이는 문서(Dokument)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며, 추후 이 공모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어느 누구도 또 어느 때라도 참고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남게 된다. ■